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⑲

2018. 7. 11.(수), 14:00~16:00

음악과 춤을 사랑한 한민족의 음악 이야기

송 혜 진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업 시작 이후에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리집(홈페이지) →교육→교육자료→강의 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⑲

음악과 춤을 사랑한 한민족의 음악 이야기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000
www.museum.go.kr
인 쇄 (주) 계 문 사 / (02)725-5216

음악과 춤을 사랑한 한민족의 음악 이야기
- 한국 음악 세 갈래

송 혜 진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음악과 춤을 사랑한 한민족의 음악유산은 오늘날 궁중음악과 풍류음악, 민속음악 세갈래로 전승되고 있다. 이 음악들은 오늘날 대부분 공연장에서 '전통음악'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전승되고 있지만 음악의 뿌리와 갈래에 따라 각각 고유한 특징을 보여준다. 궁중음악과 선비사회의 음악은 동아시아의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음악의 표현이 절제된 편이다. 민속음악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한국문화의 기층을 이뤄 온 동북아시아 무속 전통과 불교문화의 영향 아래서 유교문화에 배경을 둔 음악과 달리 표현이 자유롭고 음악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 왔다.

1. 궁중음악

1) 궁중음악의 범주와 전승배경

오늘날 궁중음악이라고 불리는 갈래는 궁중 문화가 사라진 오늘날 주로 공연장에서 감상을 중심으로 연주되고 있지만 전통사회의 궁중음악은 각기 고유한 기능과 목적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전승되었다. 오늘날의 궁중음악은 예와 음악의 정치를 통해 조화로운 평화의 시대를 꿈꾸던 조선왕조 500년의 유교적 전통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예악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법제法制로 다스리는 것보다 좋은 정치라는 생각에서 국가음악의 기강을 굳건히

세웠다. 만일 국가에 하루라도 음악이 없다면 사람들이 우울해져 마음이 야비한 데로 흐르기 쉽다고 여겨 이를 경계하였으며, 반대로 군주가 좋은 음악을 알아서 이 음악으로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하고, 하늘과 땅, 조상들을 위한 의례에서 연주하면 국가와 백성들이 모두 평안할 것이라는 지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국가음악원을 두고 음악가들을 교육하였으며, 국가의 제례와 연회, 외빈을 위한 행사, 군대의 예 등에 각각 격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였다.

특히, 15세기 세종 시대에는 국가 예악을 위한 악기와 악곡, 악보 연구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동아시아의 보편적 음악관과 조선의 고유한 음악성이 결합된 독자적인 조선의 유교음악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 때 세종이 직접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여민락, 정대업, 보태평 등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연주되는 궁중음악의 대표곡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음악들은 단순히 귀에 즐거운 음악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태평, 왕실의 권위를 나타냈으며 동시에 신하와 백성의 임금과 왕실 조상에게 바치는 충정의 표상으로서 그 어떤 음악 갈래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전승 맥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조선왕조가 막을 내린 후, 궁중음악은 과거의 궁정 문화와 결별한 채 국가음악원의 맥을 이은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및 국립국악원의 음악가들을 통해 '전통음악'의 한 갈래로 전승되면서 옛 유교 문화시대의 음악정신과 음악양식을 전해주고 있다.

2) 궁중음악의 갈래

궁중음악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제례음악, 연향음악, 행차음악으로 구분된다. 오늘날 전해오는 제례악은 조선왕조의 조상을 기리는 종묘제례악과 동양의 유교 선인들을 기리는 문묘제례악 두 종류가 있다. 연향음악은 옛 궁중에서 국가 경축 행사의 의례와 연회가 있을 때 연주되던 음악이다. 국왕이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 모든 참여자들이 국왕에게 절을 하며 예를 갖출 때, 또 갖가지 성격의 공식 연회가 벌어질 때 궁정 악대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음악을 연주하였다. 악곡은 주로 관현합주 편성으로 연주하거나 여기에 노래를 곁들인

형태가 많았는데 <여민락>이나 <낙양춘>, <보허자>, <수제천>, <관악영산회상> 등의 음악이 대표악곡으로 전한다. 행차음악은 임금과 고급 관리들이 행차할 때 연주하던 음악이다. 조선시대 임금의 행차는 그 의장대의 규모에 따라서 대가, 법가, 소가로 구분되었다. 대가와 법가는 주로 국왕이 수도의 사 대문 안에서 종묘나 사직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행차할 때, 외국사신을 맞이할 때, 왕이 활쏘기를 하기 위해서 성균관으로 나설 때 등에 연주되던 대규모 행차음악이었고, 소가는 궁 밖으로 나갈 때 연주되던 작은 규모의 행차음악이었다. 조선시대 국왕의 행차에는 당비파, 퉁소, 피리, 당적, 대금, 장구, 방향, 북, 장구로 연주하는 음악, 나발과 태평소, 바라, 북으로 편성되는 대취타 편성의 음악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은 대취타 형태만 전하고 있다.

3) 궁중음악의 특징

궁중의 의례음악은 국가와 사상, 문화의 상징으로 전승되어 온 만큼 연주형태와 연주 규모, 악곡의 빠르기, 내용 면에서 서민음악이나 선비 풍류와 차이가 있다. 연주단은 일정한 격식에 맞는 악대 편성으로 규정에 맞는 연주의상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주한다. 궁중음악은 독주나 병주 등의 단출한 편성보다는 합주나 악가무 종합연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의례의 엄숙함과 웅장함을 나타내는 크고 화려한 타악기 종류와 편종, 편경 등이 중시된다. 음악의 속도는 민속음악에 비해 대체로 느린 편이며, 예의 엄숙함과 충성, 효,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나타내기라도 하듯 개인의 감정을 표출이 자유로운 민속음악에 비해 농현이나 시김새가 매우 절제된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음악원에 속한 전문음악인들이 엄격한 교육과 제한된 범주 안에서 연주해왔기 때문에 궁중음악은 다른 전통음악에 비해 시대적 변화에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선비 풍류와 정악

1) 선비 풍류문화와 음악

풍류음악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생활문화에서 전승해 온 음악 갈래이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글 읽고 공부하는 틈틈이 음악을 배우고 즐기면서 음악을 통해 '마음의 평정'과 '바름(正)'을 추구하는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이를 통해 '정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음악전통을 형성하였다. 선비들은 유학을 공부한 조선의 선비로서 음악을 통해 중화지기中和之氣를 기르고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얻는데 음악 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음악생활을 학문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풍류 문화와 음악 생각은 오직 선비들 사회에서만 통용된 것은 아니었다. 선비들은 혼자서 명상하듯 거문고를 연주하는 한편, 때때로 자신들의 풍류모임에 거문고 연주가와 가곡을 부르는 가객들을 초청해 함께 연주하며 어울리면서 독특한 '풍류방문화'를 일궜다. 선비와 음악가들은 일반 사회의 신분이나 지위를 떠나 음악을 통해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비들은 전문 연주가들의 음악 기량을 습득하고, 악사들은 선비들이 도달하고자 한 탈속脫俗과 정인심·양성정의 정신성을 배우고 공감하면서 '정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음악전통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선비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정악이 선비들의 생활을 동경한 중인층의 호사가들에게까지 널리 유행하게 됨에 따라 금객과 가객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그들의 음악활동에 합류하게 되고, 그 결과 선비들의 풍류는 생활음악 수준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예술의 경지를 이룩하게 된다. 이러한 선비들의 음악문화에서는 오늘날 고악보라 불리는 음악기록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선비 풍류음악의 기반은 조선시대의 선비문화의 몰락과 함께 20세기 초반에 하루아침에 소실되다시피 했고, 그 악곡만은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를 통해 전하였고, 현재는 국립국악원의 주요레퍼토리로 전승되고 있다.

2) 선비풍류 음악의 갈래

선비들의 풍류음악은 기악중심의 줄풍류와 성악곡인 가곡, 가사로 대표된다.

줄풍류는 거문고 가야금, 비파, 젓대, 퉁소를 독주하거나 두세 가지 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조선 후기에는 양금과 생황 등이 더 첨가되었다. 그리고 전문 악사들을 초청한 풍류 모임에서는 가야금, 거문고, 비파, 피리, 대금, 해금에 장구가 어울린 합주가 연주되었는데 악곡으로는 <보허사>와 <현악 여민락>, <현악 영산회상> 등이 있다.

가곡은 선비들의 풍류방에서 즐겨 불리던 전문 성악가의 노래이다. 시조라고 하는 정형시를 기악반주에 맞춰 부르는 가곡은 한 곡 부르는데 15분가량 걸리는 느린 노래부터 3분 정도 걸리는 짧은 노래까지 고루 갖춘 한국 성악곡의 대표 갈래로 전승되었다. 악곡의 구성은 전 5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다른 성악곡에서 볼 수 없는 전주와 간주 성격의 대여음과 중여음이 있어 한 곡 안에서 기악연주와 성악의 대비감을 느낄 수 있다. 현전하는 가곡은 각기 속도가 다른 41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남창가곡은 우조가곡과 계면조 가곡을 포함하여 26곡, 여창가곡은 우조가곡과 계면조 가곡 15곡으로 되어 있는데, 가곡 공연에서는 남창과 여창이 교대로 우조와 계면조의 노래를 선곡하여 장시간 동안 연속 연주하거나, 여러 곡 중에서 한곡, 혹은 두 세 곡씩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사는 조선시대에 발달한 가사문학歌辭文學과 문인들이 즐겨 읽던 중국의 고전 명문장을 가곡과 시조와 비슷한 발성으로 노래하는 음악이다. 오늘날에는 모두 열 두 작품만이 노래로 전하는데 이것을 '12가사'라고 한다.

3) 선비풍류음악의 특징

선비 풍류 음악은 연주자가 바른 자세(正坐)로 앉아 어떤 음악적 감흥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음악의 속도나 느리고 장단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음악의 경우 전곡의 진행이 느린 것에서 점차 빨라 진다해도 그 음악의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점이 민속악과 다르다. 그러다 보니 음악을 통해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한다기보다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는 음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선비 풍류음악, 정악은 자연 속에서 시서화詩書畵를 즐기는 것을 학문과 짝하는 예술로 받아들인 학예일치學藝一致 정신의 선비문화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음악의 느낌은 정적靜的이고 명상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악의 음악적 특징은 대체로 속도가 느리고,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을 소리로 꽉 채우기보다는 비워두거나 잔잔한 농현弄絃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때문에 맑고 단아한 기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악은 궁중음악과 통하는 점이 많다. 궁중음악과 정악은 모두 선율의 흐름이나 장단의 빠르기에 돌출적이거나 극적인 전환이 없다. 마치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에 마모된 둥근 바위의 선처럼 완만하며 겹겹이 입은 궁중의상의 도타운 맵시를 연상시켜 준다. 또 말씨와 걸음걸이와 모든 행동양식이 급한 것을 금기로 여겼던 조선시대 고급문화의 일면과 통하며, 상층 사회 사람들의 자부심이나 선비들의 당당함이 어울려 전체적으로 힘과 부드러움이 음양의 조화처럼 맞물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민속음악

1) 민속문화와 음악

민속음악은 서민들의 일과 생활의 현장에서 부르던 민요에서부터 풍물놀이, 민속의 전문예인들이 불러 전승시켜 온 잡가와 판소리, 단가, 가야금병창, 그리고 민속기악독주양식인 산조. 그밖에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면서 가장 오랜 옛날부터 민속음악의 보물창고 역할을 해 온 '무속음악巫俗音樂에 이르기까지. 민속음악의 종류와 가짓수는 적지 않다. 게다가 민속음악을 만들어낸 토양과 그것을 생활주변에 묶어두고 같이 살아온 백성들의 삶이 제각기 달랐던 것처럼 여기에서 배태된 음악의 모습도 제각기 다르다. 마치 각 지방의 말투가 다르고 각 지방의 음식 맛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로 남도는 남도대로, 서도는 서도대로, 강원도와 경상도는 또 그 지역대로 제각기 다른 음악 언어를 가지고 있는 한국 민속의 음악 언어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음악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민들의 생활문화는 상층사회의 문화에 비해 문헌기록이 적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곧 민속음악 전승의 무대였다고 생각해보면 서민들의 음악문화를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민문화와 발달해온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사람의 생활을

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겪는 이별의 슬픔과 만남의 기쁨, 노동과 휴식, 축제와 의례의 현장에서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던 소망의 말들은 그대로 서민 음악 문화가 탄생하는 중요한 배경들이다.

농촌과 어촌, 산촌에 살던 사람들은 각각의 생활무대에서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동안 어김없이 찾아오는 절기에 따라 일을 하며 힘든 노동을 노래로 잊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거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축제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 전통에서 생활 민요가 탄생했고, 무당굿이나 마을 굿과 같은 의례와 풍물놀이 등이 생성되었다.

2) 민속음악의 갈래

민속음악 갈래에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구전되어온 민요와 민속 예인들에 의해 전승된 잡가와 판소리, 단가. 가야금병ㅊ병창 등이 있고, 기악음악으로는 무속음악에 기반을 둔 시나위와 민속 기악 독주양식인 산조가 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광대가 서서 소리, 아니리, 발림으로 긴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 고수는 앉아서 추임새를 하며 북장단으로 반주하는 극 노래이다. 판소리는 남도의 민속음악 토양에서 탄생되었고, 조선 후기의 여러 명인명창을 통해 전수되는 동안 음악형식과 표현력을 갖춘 예술음악으로 발전하였다.

판소리 광대는 장단과 조, 창법, 시김새 등의 여러 음악적 요소와 아니리, 너름새, 발림 등의 연기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소리를 들으면서 보는' 독특한 예술양식으로 완성되었다. 청중들은 소리꾼의 판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빚어내는 장면, 사실, 정황을 상상하면서 감상하는데 묘미를 느낄 수 있다. 한편, 판소리를 공연할 때는 공연 현장에 따라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기도 하고, 주요 대목만을 골라 부르는데, 전곡을 한자리에서 끝까지 부르는 것을 '완창'이라 하고, 대목을 골라 소리라는 것을 도막소리'라고 한다. 완창은 작품에 따라 3시간에서 8시간씩 걸리는 것도 있다.

판소리의 양식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소재가 노래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를 ‘판소리 다섯마당’, 또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라고 한다.

한편, 판소리는 각 시대마다 명창들의 지역이나 명창 계보에 따라 각기 다른 스타일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역에 따른 ‘동편제’와 ‘서편제’가 있다. 또 명창 개개인의 음악성을 살려 <춘향가>나 <심청가> 전체를 새롭게 짠 것을 ‘~바디’ ‘~제’,라고 하고, 특정 소리대목을 창작하여 삽입하는 것을 ‘~더늠’이라고 한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여러 명창들이 남긴 주요 더늠으로는 권삼득의 <흥보가> 중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 송흥록의 <춘향가> 중 ‘옥중가’, 염계달의 <수궁가> 중 ‘토끼가 자라 욕하는 대목’이 대표적이며, <춘향가> 약 70여 곡, <심청가>에 40여 곡, <적벽가>과 <수궁가>, <흥보가>에 약 50여 곡, <흥보가>에 50여 곡 등이 알려져 있다.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예술음악으로 발달해 온 판소리는 1964년에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로 지정되었고, 200세계유네스코 위원회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단가는 소리꾼이 긴 노래인 판소리를 부르기에 앞서서 부르는 노래이다. 긴 노래인 장가長歌에 비해 짧은 노래短歌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시조 형식의 노래를 단가라고도 불렀지만 판소리 공연에서 단가를 부르는 형식이 뿌리를 내리면서 ‘죽장망혜’, ‘만고강산’ 등을 단가로 부르게 되었다.

가야금병창은 가야금 연주자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단가나 민요, 판소리 중의 한 대목을 부르는 음악 갈래다. 거문고 병창을 하는 이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가야금 병창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병창’이라 하면 보통 가야금 병창을 말한다. 원곡이 따로 있는 노래를 병창으로 부를 때는 가야금이 소리의 선율을 따라가면서 가야금의 기악적 특성을 살리기 때문에 본래 곡과 다른 맛이 나고, 또한 소리의 선율도 가야금에 맞도록 기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가야금병창 특유의 가락이 생겨난다.

시나위는 무속음악 전통에서 나온 기악곡으로 굿이 진행되는 동안 무가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 피리, 대금, 해금, 장구, 징 등의 악기로 장단에 맞춰 즉흥적으로 연주되던 음악이다. 보통 시나위라 하면 민속기악합주를 의미하나 예전에는 풀피리・퉁소・단소・젓대 등,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독주 시나위도 있었고, 지역에 따라 차이 악기 편성이나 조와 장단, 연주방식 등이 다양하게 전승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굿판이나 민간의 음악공간이 사라짐에 따라 시나위는 점차 양식화된 공연용 음악으로 바뀌었고 개념도 축소되었다. 오늘날 무대에서 연주되는 시나위의 연주형태는 피리,

대금, 해금, 징, 장구 등의 악기 외에 가야금, 거문고, 아쟁이 함께 편성되어 각 연주자들이 합주를 하거나 돌아가면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내는 독주 부분으로 짜인 것이 많다. 그런가 하면 사물놀이가 한창 유행하면서 '사물놀이와 태평소 시나위' 형태의 공연이 인기를 누렸고, 또 슬픈 느낌이 강한 아쟁과 구음을 중심으로 구성한 '아쟁시나위', '구음시나위' 등의 연주도 하나의 작품처럼 자주 연주되고 있다.

산조는 민속음악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기악 독주형식으로 연주자의 명인적인 기량과 독창적인 해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예술음악이다. 흔히 '민속 기악의 꽃'이라 불린다.

산조는 민속음악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기악 독주형식으로 연주자의 명인적인 기량과 독창적인 해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예술음악이다. 흔히 '민속 기악의 꽃'이라 불린다.

산조는 선율 악기 연주자가 장구나 북 장단을 곁들여 5-6개의 장단으로 구성된 악장을 약 50여분 내외의 긴 시간 동안 연속 연주하는데,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여 점차 빠르게 진행된다. 산조의 선율은 한국음악의 기본적인 악조인 우조와 계면조 외에 선율단락 안에서 조에 변화를 주어 다른 갈래에서 볼 수 없는 다채로운 음악성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주자는 산조의 기본 장단과 선율골격을 연주하면서 즉흥적인 해석과 창조가 가능하며 연주자의 개성에 따라 새로운 유파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19세기 말에 맨 처음 가야금에서 시작된 산조는 주요 선율악기로 퍼져 거문고 산조, 대금산조, 해금산조, 피리산조, 아쟁산조의 갈래가 형성되었고 각 산조에서는 연주자의 창작정신을 반영한 여러 가지 유파로 분화되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민속음악 갈래로 전승되고 있다.

한편, 산조의 원곡은 연주 시간에 맞게 각 악장의 선율을 발췌하여 짧게 구성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느림에서 빨라지는 구조는 변화하지 않으며, 연주 계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짜서 연주할 수 있다. 짧은 구성의 산조는 '짧은 산조'라고 한다.

3) 민속음악의 특징

서민들의 생활문화에서 생성되고, 향수되었던 민속음악에는 궁중음악이나 선비

풍류음악과 다른 특성이 깃들어 있다. 궁중음악이나 선비들이 즐겼던 정악正樂이 될 수 있는 대로 감정 표출을 삼가는 편이라면 민속음악은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운' 마음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풀어질 수 있는 데까지 풀어져 보고, 직접 음악에 뛰어들어 보는 현실적인 음악성을 추구하며, 흥과 신명은 드러내고 한恨은 풀어냄으로서 팍팍한 삶의 고비를 홍겹게 넘게 하는 음악, 이것이 민속음악이 지닌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속음악은 일정한 격식이나 외적인 연주 조건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악대의 편성과 공연방식이 매우 개방적이다. 일상에서는 한 두 가지 악기로 장단과 가락에 맞추어 노래하거나 춤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음악에서 격식이나 사상을 표출하기 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감정을 음악에 담기 때문에 음악의 표현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음악의 농현이나 시김새를 변화있게 사용하여 흥과 한, 신명을 마음껏 표현한다. 음을 떨어내는 농현弄絃을 격렬하게 해서 음악을 극적으로 유도하며 음의 진행에 나타나는 '조이고 푸는' 과정을 뚜렷하게 내 보인다. 음악의 속도는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짝을 이루기도 하고, 음악의 진행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느리고 엄숙한 이미지를 지닌 궁중음악이나 선비 풍류 음악에 비해 빠르고 발랄하다. 그런가 하면 민속음악에서는 곱고 예쁘게 다듬어내는 음보다 힘있고 역동적으로 표출되는 음이 '아름다움'으로 여긴다. 판소리 명창이 고함치듯 질러대는 높은 소리에 청중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라는 추임새로 호응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특성은 서양 클래식이나 정악의 개념에서 볼 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민속음악은 또 즉흥적인 신명성을 추구한다. 악보나 작곡자의 뜻이 강하게 반영되는 음악과 달리 우리의 민속 음악가들은 어느 정도의 음악적 틀을 지키는 가운데 그때 그때의 흥興)을 실어 즉흥적인 음악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청중의 음악적 기대 면에서도 상통한다. 즉 민속음악을 듣는데 귀가 틘 귀 명창들은 판소리 명창들이 매번 똑 같이 연주하는 것을 '사진寫眞 소리'라 하여 생명력 없는 음악으로 여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점은 산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나위 연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민속음악은 '배운대로 잘하면 대가가 되는 것' 이 아니라 자기가 음악을 자유자재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민속음악의 어법에 완전히 달통한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좋은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속음악이 지닌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에 따라 음악의 표현요소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마치 각 지역의 방언이 다르듯, 민속음악은 서도와 남도, 동부, 경기 지역에 따라 다른 음악언어를 갖는다. 민요와 풍물, 무속음악을 말할 때 반드시 지역을 앞에서 구분하는 것은 민속음악이 지닌 지역적 특징 때문이다.

Note

Note

【 2018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 2018. 1. 31.(수)~12. 12.(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 오후 2시~4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강의 제목	강사	비고
19	7. 11.	**음악과 춤을 사랑한 한민족의 음악 이야기**	**송혜진(숙명여자대학교)**	
특강	7. 17.(화)	**고려시대 단차의 특징**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강**
	7. 18.(수)	**고려시대의 도자 문화**	**이종민(충북대학교)**	
	7. 19.(목)	**고려시대의 불교 조각**	**최선주(국립중앙박물관)**	
	7. 20.(금)	**우리 혜성 이야기**	**안상현(한국천문연구원)**	
※ 교육시설 휴지기 등으로 인한 휴강입니다.				
20	9. 12.	함께 떠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여행	안진옥(갤러리 반디트라소)	특별전 '황금문명 엘 도라도 - 보물을 찾아서' (8. 4.~10. 28.)
21	9. 19.	공간 · 시간 · 인간의 이야기, 조선지도 500년	장상훈(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지도예찬' (8. 14.~10. 28.)
22	10. 17.	명성황후와 고종의 사랑과 죽음과 복수	박계리(홍익대학교)	
23	10. 24.	신라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24	10. 31.	근대 미술의 이해	송희경(이화여자대학교)	
25	11. 7.	한국의 근대 건축	안창모(경기대학교)	
26	11. 14.	元 제국과 고려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전 '대고려 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2018. 12. 4.~2019. 3. 3.)
27	11. 21.	고려 불교사상의 이해	최연식(동국대학교)	
28	11. 28.	동아시아 속 고려 불화	정우택(동국대학교)	
29	12. 5.	고려 후기 지성인의 현실인식	도현철(연세대학교)	
30	12. 12.	고려의 재발견	박종기(국민대학교)	

※상기 강의 일정은 강사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